**프롤로그**

주인공이 살아있을 시절에 사실 무당.  
세자가 신병이 났는데 이를 왕실에서는 구분을 하지 못하니 전국의 유능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모았으나 그 누구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기만 했다. 한 신하가 나서 혹여나 신병일 수도 있으니 무당을 부르라 하자 왕이 격분하여 호통을 치나 이내 진정하고 받아들여 무당 중에 가장 유능하다는 소문이 파다한 주인공을 불렀다.

전날밤 주인공은 신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신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주인공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준다.

주인공은 이를 신병임을 단번에 알아보고 누름 굿을 하려 하는데 잡신이 아니라 뭔가 심상치 않은 신이 눌러 앉았음을 깨닫는다. 어찌되었든 칼을 들고 누름 굿을 시도하나 실패하게 되는데 신이 세자의 몸을 완전히 차지하고 세자인척 연기를 하는데 이는 티가 거의 나지 않아 주인공도 눈치를 채지 못한다. 주인공은 왕에게 큰 상을 약속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저 멀리서 집 방향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불길한 생각이 든 주인공은 집으로 뛰어간다. 집에 도착한 주인공은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주인공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만다.

갑자기 주인공의 등에 칼이 꽂히니 주인공은 입에서 피를 토했다. 사실 상을 준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세자가 신병이 들었었다는 것이 세간에 퍼지면 안되기 때문에 왕실에서 자객을 보내 주인공의 집을 불태우고 주인공까지 죽여버린 것이었다. 칼이 꽂힌 주인공은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자객은 주인공의 시체를 대충 야산에다 묻어버렸다.